

추리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



2006년 최고의 반전을 선사하는 추리애니메이션 <빨간모자의 진실>이 오는 4월 6일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다. 강혜정·김수미·임하룡·노홍철 등 이미 사상 최강의 보이스 캐스팅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빨간모자의 진실은 기존 <빨간모자> 동화를 기발한 추리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시켜 전미 흥행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프린세스 다이어리1,2>의 앤 해서웨이와 <101 달마시안>의 글렌 클로즈 등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여 평단과 관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빨간모자의 진실은 애니메이션 최초로 수사극적 구조를 차용한 최초의 추리 애니메이션이다. 같은 사건을 놓고 네 명의 용의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과정은 기발함과 유머로 가득 차 있어 실재 없는 웃음과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재치 만점, 절대 애교의 캐릭터들이 기존 동화 속 캐릭터가 가지는 고정된 이미지를 한방에 날려버려 더욱 흥미롭고 유쾌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글 신선자 자유기고가



빨간 모자의 진실은 제목부터 비상하다. 빨간 모자는 알겠는데 진실은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빨간 모자의 진실은 고전동화 <빨간 모자>를 코믹 추리 버전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웨인 스타인 형제가 미라맥스를 떠나 설립한 제작사 웨인스타인 컴퍼니에서 만든 첫 번째 가족 애니메이션이다. 4명의 용의자, 4개의 스토리로 재단된 추리 애니메이션이라 불리는 빨간 모자의 진실은 알잡아 볼 수 없는 카리스마로 무장했다.

비트는 재미,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



어릴 때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동화 빨간 모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17세기 <샤를 페로>를 거쳐 18세기 <그림형제>를 만나며 그 모양새를 변화시켜 왔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역시 그림형제 버전이다.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에게 잡아먹힌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지나가던 사냥꾼의 도움으로 늑대의 배를 갈라 살아나고 그 대신 무거운 돌로 배를 채운 늑대가 물에 빠지면 이야기는 끝이다.



감독과 각본을 맡은 코리 에드워즈와 토드 에드워즈는 그 이야기를 비틀기 시작한다. 동화대로 빨간 모자는 착한 아이일까. 아니면 늑대와 할머니를 구분 못할 정도로 바보가 아닐까. 그렇다면 할머니는 늑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약했을까. 사냥꾼은 왜 그곳을 지나갔을까. 그는 남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는 착한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빨간 모자의 진실>은 동화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출발해 21세기 버전으로 탈바꿈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에드워즈 형제가 만들어낸 그 진실은 무엇일까.

영화가 시작되면 이진 '다 아는 얘기'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동화책이 펼쳐지고 카메라는 책 위로 펼쳐진 나무 사이로 쾌속 질주한다. 역시나 숲 속 오두막집의 할머니 침대에는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가 누워있고 빨간 모자가 등장한다. 늑대가 본색을 드러내고 빨간 모자를 잡아먹으려는 찰나, 온 몸이



퐁퐁 뚫인 할머니가 벽장에서 튀어나온다. 바로 그 때 창을 뚫고 들어온 도끼를 든 천하장사! 다음 컷에는 경찰차들이 요란하게 불을 밝히며 할머니의 오두막을 둘러쌓아 놓고 접근 금지가 적힌 노란 끈들은 무질서하게 늘어져있다. 현장에서 잡힌 4명의 용의자, 빨간 모자·늑대·할머니 그리고 도끼 맨.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아니, 도대체 무슨 범인을 찾는 것일까.

어림잡작은 사절! 개성만점 캐릭터

빨간 모자가 사는 숲 속에서 요리책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요리책이 사라져 요리를 할 수 없는 가게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되는데 최고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할머니의 케이크를 배달하던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요리책을 사수하기 위해 숲 속 오두막의 할머니를 찾아간다. 첫째 용의자인 빨간 모자는 자신이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빨간 모자로 불린다는 걸 알고 있지만, 숲 속이 답답하기만 하다. 뽀로통하고 시무룩한 표정과 냉소적인 말투의 빨간 모자는 태권도 유단자이다. 늑대를 죽지 않을 만큼 꽤 컸다나.

뭐가 그리 바쁘지 오겠다는 손녀를 거부하는 두 번째 용의자 할머니. 할머니의 목 뒤에 새겨진 트리플 'G'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과 손녀마저 속인 채 이중생활을 해온 할머니의 실체가 밝혀진다. 사실 뭐, 실체라고 해봐야 별 것 없다. 기운 빠진 노인네가 아니라 펄펄 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마니아 정도랄까. 하늘에서 할머니를 본다면 절대 놀라지 말 것!

할머니 옷과 가면으로 변장을 했지만 영특한 빨간 모자는 늑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빨간 모자에게 두들겨 맞기도 한 늑대는 특종을 잡으러 온 기자이다. “왜 너는 늑대냐”는 질문에 “부모가 늑대인 것도 죄냐”고 대답하는 등 언뜻 현명해 보이는 늑대는 파파라치 다람찍사를 데리고 다니고, 양의 탈을 쓰고 정보원인 양떼 속을 헤매는 세 번째 용의자이다.





누구라도 압도당할 만한 체구에 도끼를 들고 창문을 뚫고 들어온 도끼맨. 그가 입을 열자마자 누구도 그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너무 섬세하고 여린 영혼을 가진 어리버리 소심맨 도끼맨은 네 번째 용의자이다. 무좀약 광고의 배역을 위해 도끼를 들고 자기 안의 나무꾼을 찾으러 왔다는데.

용의자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겨울잠을 못자서 피곤하다는 꿈 아저씨 수사반장은 늑대와 도끼맨을 가택침입과 살인미수의 죄를 씌워 끌고 가려는 찰나, 냉철한 이성과 정확한 판단으로 사건을 푸는 것으로 유명한 개구리 수사반장 폴짝이가 등장해 '4명의 범인이 있으면 4가지 사연이 있다'고 선언해 구로자와 아키라의 <라쇼몽>의 애니메이션 버전이 시작된다. 용의자들은 모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개구리 수사반장은 심증을 굳힌다.

이들 외에 마녀의 저주를 받아 입만 열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요들 싱어 산양도 빛나는 역할을 해낸다.

한국형으로 거듭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이상한 소식이 있다. 한국 관객들은 빨간 모자의 진실을 더빙판으로만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로컬라이징의 한 예이다. 로컬라이징은 외국 상품이나 문화를 한국 국민에게 유입할 때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현지화를 말한다. 빨간 모자의 진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컬라이징 방식을 택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없던 사례라 놀랍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애니메이션이란 부모와 동반한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자막을 읽는 번거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점, 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포착의 재미를 한번에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의 요소가 작용했다.

로컬라이징된 빨간 모자의 진실이 관객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의문이지만 첫 선보인 자리에서는 로컬라이징 성공 사례로 뽑힐 만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빨간 모자의 진실>은 엄밀히 말해서 절반은 한국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코드와 현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엽기할머니 캐릭터의 김수미가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로 더빙을 했고, 왕수다 노홍철이 빠른 속도로 말하는 다람찍사역을 맡았기 때문. 관객은 영화 안에서 노홍철의 유행어를 들을 수 있고 요즘 한국 코미디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웰컴 투 동막골>의 강혜정이 빨간 모자를, 개구리 수사반장 폴짝이 역은 임하룡이 맡았다. 단순한 목소리 더빙이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이미지가 맞는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색다른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개봉 첫 주 1위로 데뷔한 빨간 모자의 진실은 글렌 클로스, 앤 해서웨이, 제임스 벨루시, 채즈 팔민테리가 보이스캐스팅됐다.

한국판 빨간 모자의 진실을 보면 목소리 뿐 아니라 간간히 들어가 있는 노래(특히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대는 산양 캐릭터의 더빙)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고 감칠 맛나게 믹싱이 되어있다. 빨간 모자의 진실의 우리말 연출은 만화영화 채널 투니버스에서 <카우보이 비밥>, <몬스터>, <달빛천사> 등 2,000편 이상의 애니메이션 녹음 연출을 도맡아온 신동식 제작 팀장이 맡았다. 신동식 팀장은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로컬라이징에 대한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금껏 다양한 장르의 많은 애니메이션을 더빙했지만, 성우가 아닌 연예인들과의 작업은 처음이라서 무척 걱정했다"며 "캐릭터와 이미지, 즉 생김새가 비슷할 뿐 아니라 목소리 이미지도 캐릭터와 딱 맞아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람찍사를 맡은 노홍철은 행동까지 똑같이 따라해 녹음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추리극의 재미, 한국어 더빙을 즐겨라

빨간 모자의 진실은 영문 제목인 <Hoodwinked(속았다)>인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용의자 4명의 사연이 밝혀지면서 시종일관 뻔뻔하고 배꼽 잡는 반전을 거듭한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진짜 범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흥미롭고 신선하게 다가오지만 반전 후에 벌어지는 결말은 그리 산뜻하

지 못하다. 판에 박힌 할리우드 액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D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스펙터클함과 장르적 매력에 더해진 개성만점 캐릭터의 모험에 동참하게 하는 힘이 있다.

배급사인 쇼박스 측은 “두 달 동안의 더빙과정을 거치며 자신감이 생겼다”며 “시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에서도 더빙판 만을 상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 애니메이션 더빙판에 실망한 경험에 있는 관객들은 원어 상영을 바랄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됐건 원어판과 더빙판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뺏겨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기우일까.

빨간 모자의 진실의 한국어 더빙은 훌륭하다. 애니메이션의 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미를 한 층 높였다고 보여진다.(물론 한국인들에게만) 4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만한 유쾌하고 경쾌하고 재미난 추리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작 품 개 요

- 제목 : 빨간모자의 진실
- 장르 : 애니메이션 / 추리
- 러닝타임 : 80분
- 관람등급 : 연소자 관람가
- 제작국가 : 미국
- 감독 : 코리에드워즈
- 목소리 : 앤 해서웨이/글렌 클로즈/데이빗 오그던 스타이어스/코리에드워즈/강혜정/김수미/임하룡/노홍철
- 각본 : 코리에드워즈/토드 에드워즈
- 제작 : 하비 와인스타인
- 음악 : 존마크 페인터
- 배급사 :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수입사 :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 홈페이지 : www.hoodwinked.co.kr
- 국내 개봉일 : 2006. 4. 6

